



정혜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주임신부: 김원현 베드로 916-207-4806
 본당부제: 김상돈 도미닉 916-580-8519
 사목회장: 김도철 베드로 916-690-6555
 연령회장: 최중구 안토니오 916-747-8431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사무실: 916-368-9204

| | | | | | | |
|--------|------|---------------|------|--------------------|----|---------------|
| 오늘의 말씀 | 제1독서 | 집회서 27,4-7 | 제2독서 | 코린토 1서 15,54-58 | 복음 | 루카 6,39-45 |
|--------|------|---------------|------|--------------------|----|---------------|

“내가 하는 말 ... 아버지께서...” (요한 14,10 참조)

오늘 묵상하는 복음은 루카 복음 사가에 의한 ‘평지 설교’ (루카 6,17)의 마지막 부분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녀야 할 마음가짐을 여러 상징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리사이들을 눈먼 길잡이라 하는데 이들이 율법의 세부 규정은 강조하면서 그 근본 취지는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제자는 예수 스승을 넘어설 생각을 말고 언제나 그분을 척도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고, 자기 자신은 큰 허물을 지닌 주제에 남의 작은 허물을 고치려는 짓거리를 닦하시는 비유이며,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는 비유이며, 자기 안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기 마련이며,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닦하시면서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지금 성부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장차 종말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으로 평지설교가 마무리됩니다.

사람들의 천천한 상상에 대해 적은 어떤 글의 일부를 옮겨봅니다.
 "첫째, 남들이 흉을 보든지도 모르고 떠드는 수치를 모르는 자, 둘째, 자신이 능력 있다고 스스로 말하고 다니는 자, 자기 자랑을 떠벌리는 행동은 두 가지 이유에서 어리석은데, 잘난 척은 다른 사람에 대한 우월감의 표현이고, 우월감은 사람을 억누르고자 하는 폭력성의 발현이다. 잘난 척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좋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복이 붙을 수 없는 노릇이다. 잘난 척은 빛이다. 처음 잘난 소리를 할 때 흑여 주변 사람들이 “와아” 하고 감탄할지도 모른다.

잘난 척하는 사람을 보면 본전 심리가 생긴다고 한다. “네가 그렇게 돈이 많아? 그러면 네가 쓰면 되겠네” “그렇게 힘이 있다면서 나 하나 못 도와주느냐?” 말에 책임을 지지 않으면 체면이 서지 않는다. ...” 1)

사람은 자신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합니다.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먼저 무언의 언어 -미소와 표정, 걸음 걸이, 의복, 동작, 소유물 그리고, 그다음 대화로 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말은 내면의 반영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고, 그 인격을 가능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부주의 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끕니다.
 은혜스런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케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줍니다.

모두 주님의 자녀다움이 묻어나는 언행으로 주님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합시다. 진리는 조용합니다. 거짓은 시끄럽습니다. 틀리지 않았다고 주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 한재우, 2015.8.11., #복을 내쫓고 화를 부르는 여섯가지 천한 습관, 브런치스토리, <https://brunch.co.kr/@stillalive31/73>

| 일 자 | 전 려 력 | 미사시간 | 우리들의 정성(지난주) | |
|----------|--------------|-----------------|--------------|---------------------|
| 3월4일(화) | 연중 제8주간 화요일 | 오후 7시30분 | 주일헌금 | \$ 1,129.00 |
| | | | 교무금 | \$ 1,880.00 |
| 3월5일(수) | 재의 수요일 | 오후 7시30분 | 성물방 | \$ 26.00 |
| | | | 사랑의 급식 | \$ 344.00 |
| 3월6일(목) | 재의 예식 다음 목요일 | 오후 7시30분 | 부활초 봉헌 | \$ 350.00 |
| 3월7일(금) | 재의 예식 다음 금요일 | 3구역 미사 | | |
| 3월8일(토) | 재의 예식 다음 토요일 | 오후 7시30분 | 합 계 | \$ 3,729.00 |
| 3월9일(주일) | 사순 제1주일 | 오전 9시 오전 11시 | 미사참례자 | 학생: 13명 성인: 156명 |

| | |
|---------|--|
| 교무금 봉헌자 | 이윤상, 최정신(3-4)윤영자, 김은영(3)김선식, 조영진(2)김숙남, 신흥재(1-3)신영후(1-2) |
|---------|--|

성당에 들어가면 어디에 절을 할까요?

우리는 성당에 들어가고, 또 나올 때마다 고개를 숙여 절을 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 인사를 드리는 것이지요. 성당 앞의 제단을 향해서 예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인사를 하기는 하는데, 정확히 어디에 인사를 하는 것일까요?

의외로 신자분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립니다. 일단 예수님께 인사드린다 생각하니 예수님이 매달려 계신 십자가에 인사해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감실에 인사를 하는 것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제대에 인사하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포털 사이트를 검색해 보니 올라온 답변들이 서로 달라 헷갈리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성당에 들어갈 때 ‘제대’를 향해 절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미사 중 독서자들도 제단에 오르기 전에 제대를 향해 절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제대는 성체성사가 재현되는 주님의 식탁이자 성당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로부터 제대를 중요하게 여겼는데요. 교회는 “성찬례를 거행하기 위해 교회가 그 돌레에 모이는 제대는 한 신비가 지니는 두 가지 측면, 곧 주님께서 희생되신 제단과 주님의 식탁을 나타낸다”며 “그리스도교의 제대가 상징하는 것이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기 때문”이라고 가르칩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383항) 제대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바치신 제사가 이뤄진 제단임과 동시에 예수님과 모든 신자들이 함께 하늘나라의 잔치를 만끽하는 식탁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분명하게 지속적으로 나타” 냅니다.(로마 미사경본 총지침 297항) 4대 교부 중 한 분으로 유명한 암브로시오

성인도 “제대는 성체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성체는 제대 위에 계신다.”, “사실 그리스도의 제단이란 그리스도의 몸의 형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는 말씀들로 제대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고 합니다. 제대는 주로 돌로 만드는데요. 그 이유도 “살아 있는 돌” (1베드 2, 4)이자 “모퉁잇돌” (에페 2, 20)이신 예수님을 더 잘 드러내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실은 중요하지 않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교회는 감실을 “성당 안에서 눈에 잘 띄이는 뛰어난 곳에 아름답게 꾸며져 기도하기에 적합하게 설치” 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교회법 제938조2) 감실을 “최대의 존경심으로써 가장 중요한 위치에” 설치하라고도 말합니다.

다만 감실의 외양과 위치는 “제대에서 이루어진 성체성사 안에 실제로 현존하시는 주님께 드리는 경배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말합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183항) 감실은 신자들이 제대 위에서 거행되는 성체성사와 파스카 신비를 기억하고, 성체 앞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대에서 거행되는 성찬례가 없다면 감실도 없는 것이지요. 성찬례는 “그리스도교 생활 전체의 원천이며 정점”입니다.(제2차 바티칸공의회 「교회헌장」 11항) 제대를 향해 고개 숙여 절할 때마다 성찬례를 통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떠올려보면 어떨까 합니다.

(가톨릭 신문 이승훈 기자의 글입니다.)

◎오늘의 미사지향 (미사신청: 사무장 916-368-9204/전례부장 916-990-6531)◎

| 구분 | 봉 헌 자 | 지 향 | 구분 | 봉 헌 자 | 지 향 |
|----|------------|---------------------------|----|-----------|--------------------------|
| 연 | 서바오로, 류실비아 | 서정선 엘리사벳 영혼 | 생 | 김평옥 모니카 | 아들 Shawn Hovey 영육간의 건강 |
| 연 | 김순녀 도미질라 | 더글라스 맥 윌리엄 영혼 | 생 | 이요안나 | 임준섭 요셉 치유를 위하여 |
| 연 | 이서향 미카엘라 | 이옥련 마리아 영혼 | 생 | 김희정 가브리엘라 | 임준섭 요셉 치유를 위하여 |
| 연 | 김정해 헬레나 | 정옥순 프란체스카 영혼 | 생 | 신정옥 데레사 | 임준섭의 빠른 쾌유를 위하여 |
| 연 | 유정임 가브리엘라 | 정순음 안나, 이순애 엘리사벳 영혼 | 생 | 박수옥 글라라 | 임준섭 요셉 치유를 위하여 |
| | | | 생 | 이영숙 데레사 | 임준섭 요셉 치유를 위하여 |
| 생 | 유정임 가브리엘라 | 박원상 토마스 영육건강 | 생 | 최종구 안토니오 | 최범희 에메리코 영육간의 건강 |
| 생 | 김명희 수산나 | 원 카타리나 영육간 건강 | 생 | 차영미 카타리나 | 송영숙 크리스티나, 이제임 데레사 건강 |
| 생 | 아빌라 데레사 | 김은영 폴리나, 김연화모니카 영육 건강(생일) | 생 | 신정옥 데레사 | 차영미 카타리나, 송영숙 크리스티나 영육건강 |

◎공동체 소식 “은혜로운 때에 내가 너의 말을 듣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주었다. “(2코린 6,2)

1구역(FE).2구역(F0).3구역(PC).4구역(NH).5구역(GF).6구역(RC).7구역(RT).8구역(NC).9구역(EG).10구역(DW)

<기도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1. 재의 수요일 미사

일시: 3/5일(수) 오후7시30분. 미사중에는 재를 머리에 얹는 예식이 있습니다. 이날은 단식(18세 부터 59세까지 한끼)과 금육(14세부터 계속)의무가 있습니다. 아침미사는 없습니다.

3. 양업 토마스 공동체 (리노공소) 미사

일시: 2일(주일) 성당에서 오후1시 출발
 참여단체: 회장단 / 사목회
 리노공소를 위해 많은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4. 성령찬미미사 및 성시간

일시: 6일(목) 저녁8시. 성당
 저녁7시(목주기도) 저녁7시 30분(찬미)
 저녁8시(미사, 성시간 및 안수예절)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많은 참여 바랍니다.

5. 본당 구역장 회의

일시: 2일(주일) 교중미사 후 엘리사벳방
 각 구역장님께서서는 필히 참석 바랍니다.

6. 단체활동

- 1-1구역 : 3/9 (주일) 미사후 마태오방
- 1-2구역 : 3/7 (금) 김용문 요한 댁
- 2구역 : 3/9 (주일) 미사후
- 3구역 : 3/7 (금) 김동현 미카엘 댁 (구역미사)
- 6구역 : 3/9 (주일) 점심식사 봉사후
- 8구역 : 3/9 (주일) 미사후 요한방

복지부 : 2일(주일) 오전 8시 홀리스 음식 봉사
 울뜨레아 : 12일(수) 5시30분 구사제관

7. 아치에스 행사

일시: 9일(주일) 12시 45분 본당
 레지오 행동단원 및 협조 단원은 참석 바랍니다.

8. 본당 꾸리아

일시: 16일(주일) 엘리사벳방
 각 뽀레시디움 4간부께서는 참석 바랍니다.

9. 사랑의 급식 안내

3월 9일 (주일): 6구역
 메뉴: 뼈다귀배추된장국 금액: \$5
 도네이션 하실 분은 사무실에 제출 바랍니다.

10. 북가주 성가 나눔

일시 : 3/8 (토) 11시
 장소: 오uckland 성당 (점심식사 제공)
 신부님과 성가대가 함께하는 성가나눔 대회에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1. 주방 확장 공사로 인해 3월 16일(일)부터 4월 6일(일)까지 주방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일정이 있으신 단체는 일정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방 물품 정리 작업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오니,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하려는 취지이오니,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 감사합니다

사랑의 급식 수입금(정혜엘리사벳회) : \$ 272
 도네이션(6구역 사랑의급식): \$100 박병수 벤자민
 도네이션 : \$200 김광희 프란치스코 (감사헌금)

14. 섬머타임 시작 (Daylight Saving Time Begins)

일시:8일(토) 밤10시를 밤11시로 조정 바랍니다.

화답송



주님 당신을 찬미 하오니 좋기도 하옵니다

| | | | | |
|------|--------------|--------------|---------------|---------------|
| 전례봉사 | 연중 제8주일(3/2) | 사순 제1주일(3/9) | 사순 제2주일(3/16) | 사순 제3주일(3/23) |
| 미사해설 | 박희현 / 이해련 | 오민정 / 김진영 | 곽유경 / 정미정 | 지혜진 / 전병욱 |
| 독서 | 9시 | 윤지명 / 이영래 | 안유주 / 안성수 | 윤지명 / 민마이클 |
| | 11시 | 전우성 / 전병욱 | 김귀태 / 김은영 | 김동현 / 김혜진 |
| 복사 | 9시 | 김노아 / 황건영 | 허준희 / 오은수 | 허준희 / 황건영 |
| | 11시 | 최준우 / 최봉락 | 권오승 / 송돈희 | 윤지현 / 김영준 |
| 헌금위원 | 셋별Pr. | 창조주의 어머니Pr. | 천상의 모후Pr. | 셋별Pr. |

(광고)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로마 10,13

주보제작: 사무장 김나윤 프리스카(916-368-9204) E-Mail:prisca0118kim@gmail.com

에어컨 수리

Air Conditioner
Service & Repair

배용환(울리아노)
916-548-3278
916-362-3300

1.2.3 Auto

정비/수리/각종부품교환
바디 수리/판금/페인트

11357 Pyrites Way
Suite B1, Rancho
Cordova CA 95670
이호영(호영베드로)
916-366-0123
916-807-4886

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

사업/상해/자동차/집/
건강/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 CA 95827
916-362-3300 (O)
916-475-3770 (C)

최병엽공인회계사

Byungyeub Choi CPA &
Associates Inc.

9521 Folsom Blvd. suit P
Sacramento, 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엽(바오로)
916-363-2345

Hair Story Salon

9723 Folsom Blvd. #B
Sacramento, 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 린(클라라)
916-342-7072

클라라 가정양로원

(Clara Care Home)

4665 Freeway Cir.
Sacramento, CA 95841
김재열(스테파노)
김옥기(클라라)
530-771-7715
530-204-8878

Angel Garden Care Home

9873 Traveler Court Elk Grove, CA 95624

조영숙(도미니카) 530-886-9529

ycho11281128@gmail.com

- ▶ 케어홈 운영 상담 가능
- ▶ 구인광고

- 40세 이상 여성으로 가사경험이 풍부하신 분
플타임. 파트타임 가능 / 시간당 \$20 / IRA가능(희망자)

CATHOLIC FUNERAL CEMETERY SERVICES

(새크라멘토교구 직영)

6509 Fruitridge Road
65th Street
Sacramento, CA 95818

한국세션 담당 Beda
916-840-2156
279-799-8572

장의사 W.F.Gormley & Sons Funeral Home

Family Owned Since 1897
Preneed Services
Available
916-443-6513
www.gormleyandsons.com
모든 장례예절 성실히 봉사

메리서 부동산 · 용자 · 재정서비스

-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및 자문
- 주택용자/SBA/Commercial/Land
- 은퇴-자산-재무설계/재산관리

서주연(마리아)

916-271-3671 · maryseo@gmail.com
CALIFORNIA · GEORGIA · HAWAII



CHEZ JULIA

HANDMADE SOAP & CANDLES

*** 쉐 줄리아 공방 ***

수제 비누, 샴푸바, 캔들, 디퓨저,
One day Class. Thank you gifts

 /chezjulia_banheemom

박지은(아델라)
626-617-2215



스마일마켓 쿠폰판매

※ 판매금액의 15% , 본당 재정 수입

여성부장 최재진 모니카

916-798-6577

성물방 이나숙 데레사

916-201-5630

양업토마스공동체

(리노공소) 후원

고추장. 된장. 도토리 국수. 참기름. 고춧가루 판매
리노공소 기금마련을 위한 수익사업입니다.
공소부장(916-591-0179)